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협치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국회 첫날 경제·드루킹 특검 충돌

민주 “한반도 평화·민생경제 골든타임...야 협조해야” 한국·바른미래 “문정부 경제 실패 서민 힘들어” 맹공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드루킹 특검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충돌,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위보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데어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 전선이 형성된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 드루킹 특검 연장, 국민연금 해법 논란 등 여야가 충돌할만한 쟁점이 많아 원만한 임시국회가 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3당이 8월 국회 입법 성과를 내려고 민생경제법안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나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 민생·개혁 법안 처리 과정으로 불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남북경협 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반기에 청와대가 주도한 남북평화 노력을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재일우의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관철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립과 반목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골든타임을 살리는 일에 야당도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민생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의 효과가 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두고 “자칫하면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도 될 수 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경제는 망가져 가고 소상공인은 광화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했지만, 소득은 고사하고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는 마당에 성장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소득주도 경제정책으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경제를 펼치면 경기도

나아지고 고용도 늘 거라 했지만 정작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민주당 김현 대한민국당이 강력히 주장한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특검의 싹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며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은 억지이자 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 정신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며 “(김 지사 영장청구는) 특검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강하게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8월 국회를 달걀 재료로 꼽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선거제 개편에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미온적이던 민주당이 이들 야당의 요구를 도외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합평서 최고위...민생행보 가속화

정동영 대표 “영산강 사업 예산 당차원 총력 지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합평서를 찾아 영산강 4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폭염·가뭄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합평군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산강 4지구 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는 수조 원을 투입했는데 영산강 사업에는 17년 동안 고작 4000억원 밖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영산강 4지구 사업은 영산강 수계에 양수장 10곳, 조절지 7곳, 용수로 487km, 배수장 13곳을 갖추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8573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착공 17년이 지났는데도 사업 준공 지연으로 용수 공급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 대표는 “17년 동안 충분히 뜸 들였으면 됐다”며 “앞으로 1~2년 안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연재해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해 현재 홍수·태풍·가뭄·우박으로 한정된 자연재해 보상 체계에 폭염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합평·영광·무안군의 클러스터 사업이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지역 특화 사업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작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합평지역의 한 수박밭을 찾아 폭염과 가뭄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합평군 제공>

만 기본 소식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합평군 가뭄·폭염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평화당은 정 대표 제체가 들어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하는 등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정국 기자 jwpark@kwangju.co.kr /합평·황원학 기자 hwang@

리얼미터 여론조사 2편

문대통령 지지율 55.6%·민주 37%...동시 하락

국민연금·안희정 영향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이후 동시에 최저치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5.6%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최저치였던 지난주 주간집계(58.0%)보다도 2.5%p 낮아진 것이다.

리얼미터는 “최근 ‘지지율 하락’ 보도에 따른 편승효과와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다소 영향을 미쳤다”며 “무엇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이 여론에 대한 불신감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진보층 지지가 크게 이탈(7.3%p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3.6%p 떨어진 37.0%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월 4주차(34.5%)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의 최저치다. 30%대로 떨어진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과 함께 네거티브 양상을 보이는 당대표 선거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당의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자유한국당은 20.1%로 2주째 완만하게 상승하며 20%선을 넘었다. 정의당은 0.9%p 떨어진 13.3%였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2.2%p 오른 7.7%로, 3주째 만에 7%대를 회복했으며 민주평화당은 다소 오른 2.7%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도도 김영록 1위

이용섭 10위·이재명 꼴찌

6·13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7기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장 높은 지도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7~31일 광역 시도별로 5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김 지사의 직무수행 지도도는 61.8%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위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1.1%, 최문순 강원지사는 60.8%로 뒤를 이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58.0%로 4위, 송하진 전북지사는 56.8%로 5위, 권영진 대구지사는 55.4%로 6위를 각각 기록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45.4%로 9위, 이용섭 광주지사는 44.1%로 10위를 각각 차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1.3%로 11위였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29.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도지사의 지도도는 높은 반면 광역시장의 지도도는 낮았다.

지역별 주민생활 만족도는 제주가 59.2%, 전남이 56.2%, 강원이 55.2% 등으로 최상위를, 부산이 41.3%, 서울이 43.7%로 경북이 44.3%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48.7%로 9위였다.

이밖에 민선 4기 시도 교육감 지도도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1.2%로 1위,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58.8%로 2위, 설동춘 대전교육감이 51.1%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1.4%로 11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국익 위한 최소 영역 제외 특별비 폐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는 오늘부터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문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2018년도 특별비는 특별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회의원 등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별비 본연의 목적이 아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광주바이블칼리지 신입생모집

학장 이환수 박사

찾으십시오!
창원 삶의 의미...
누리십시오!
쾌적한 20,000평의 자연 경관 속에서...

새학기 기숙형 신설반 (선착순 30명 모집)

1. 기숙형 신학연구원 (주초반): 주일 야간 ~ 화요일주간
- 대상 및 기간: 신학생, 2년(코스 수료 후 준교사 응시자격 부여, 이수학점에 따라 기간 조절 가능)
2. 기숙형 평신도훈련원 (주말반): 금요일 야간 ~ 토요일 주간
- 대상 및 기간: 평신도, 3학기
- 교육 내용: 성경개론, 구약사, 예배학, 전도학, 신학교, 설교학, 찬송학, 정치론, 교회론 등
- 특전: 졸업 후 목회자의 길을 지망할 경우 신학연구원 편입 가능.

기존 신설반 (12년간 유지)
▶월요일: 월요일 주간 ▶야간반: 주일야간 + 월요일야간 ▶토요일: 토요일 주간
▶화요일: 화요일주간 ※ 한 교회에서 3명 이상 동시 등록시 30% 감면

모집기간: 9월 개강전 수시모집
▶구비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접수방법: 본교 행정실 및 홈페이지, 등록금과 장학 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람.

2학기 개강일
▶토요일: 9월 1일(토) ▶야간반: 9월 2일(주일) 신입생 M.T.: 8월 25일(토) 오전 11시
▶월요일: 9월 3일(월) ▶목회자반: 9월 4일(화) 개강예배: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광주바이블칼리지 http://gibc.kr
광주국제기독교대학 http://mygcds.com

☎ 061-381-0000 / 1365
010-9960-0091 (행정실장)
010-3636-9200 (교학처장)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길 42-34(성도의 산72)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펜션·전원주택지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동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200
- 월산동 리모델링완료 땅 144㎡ 2중주택 118㎡ 1억9천만원 1층대거주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삼거리 대로변점 계획관리지역 3640㎡ 6억9천
- 전북 신덕인 상업지 1213㎡ 은행3억6천 감정6억7천 교환가능 4억6천
- 영암 심호면 준공업지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3천
- 나주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부근 전 3154㎡ 전원생활용 5300만원
- 월산동 양면도로접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가 대로접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삼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흥농면 주거지역 5223㎡ 공시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함평역 건너 대로접 2중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상가건물

- 신안군 신의면 전망좋은 비닷가 인접 땅 4428㎡ 가든과 민박 5실 건물 301㎡ 은행 1억 펜션·연수원 적합 교환가능 3억4천
- 동구 수기동 소방도 코너 4층건물 6380㎡ 건물990㎡ 은행6억 매도 12억8천
- 장성 삼계면 사창리 중심지 땅 192㎡ 건물 140㎡ 급매 2억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금남로5가 소방도 땅 213㎡ 건평 599㎡ 은행 3억 매도 6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능 16억
- 충장로5가 땅 109㎡ 건물 378㎡ 8000에 월 115 임대중 3억5천
- 부안군 번산면 도창리 땅 792㎡ 편성 건평 867㎡ 은행 4억7천 매도 8억2천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중추해서 요양병원최적 65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하건설(주)

010-3605-0214
062) 655-4840